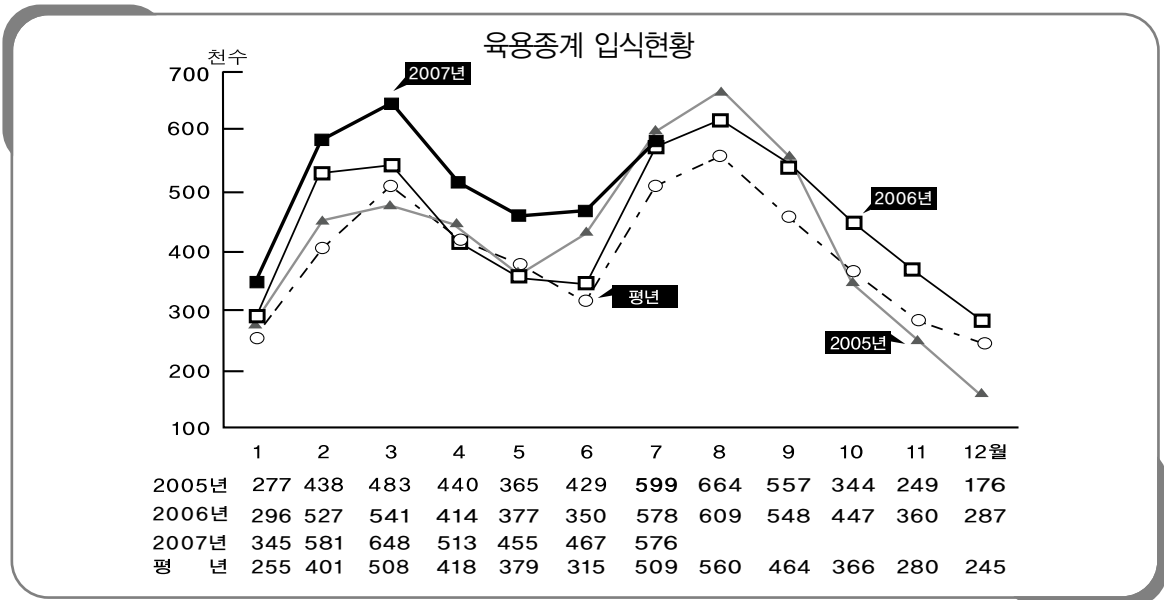


9월 닭고기 수급 전망

1. 육용종계 입식현황

■ 7월 육용종계입식수수 전년동기대비 0.4% 감소

- 지난해 입식된 육용종계는 5백33만수로 전년 동기간보다 6.4% 증가(특히 4/4분기에는 42.3%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7월까지 3백59만수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1/4분기 15.4% 증가, 2/4분기 25.8% 증가)해 당분간 육용실용계 생산수수는 계속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월 이후 육계사육수수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 한편, 지난 7월에는 육용종계 입식수수가 57만5천6백수로 전년동기 대비 0.4% 감소했으며, 이는 평년 수준(50만9천수) 대비 13.1% 증가한 수준이다(6월 46만6천9백수 대비 23.3% 증가).



※ 주 : 평년은 2002~2006년의 입식수수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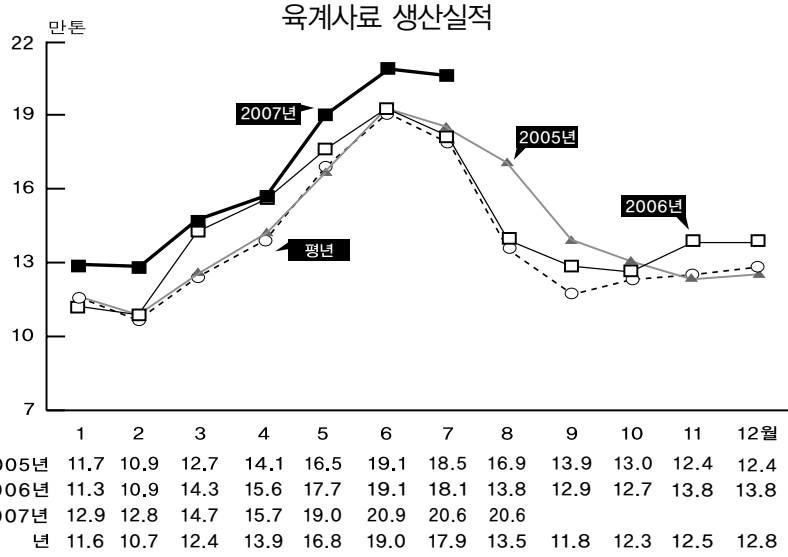
※ 자료 : 대한양계협회

2. 배합사료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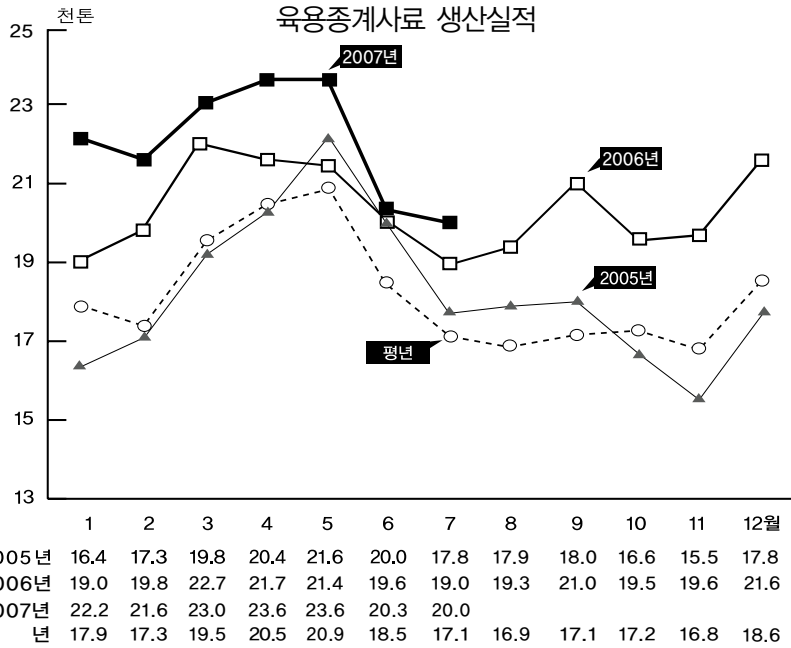
■ 8월 사육수수 전년동기보다 3.6% 증가 전망

- 9월 닭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7월 육용종계사료 생산량은 20,049톤으로 전월(20,302톤)에 비해 3.3% 감소했으나, 전년동월(18,995톤)에 비해서는 5.5%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고, 최근 종계 신계군의 생산가담으로 인해 사료생산량보다 실제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지난 7월 육계배합사료 생산량은 205,604톤으로 전월(208,742톤) 대비 1.5%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180,999톤) 대비 13.6% 증가했다.

9월 닭고기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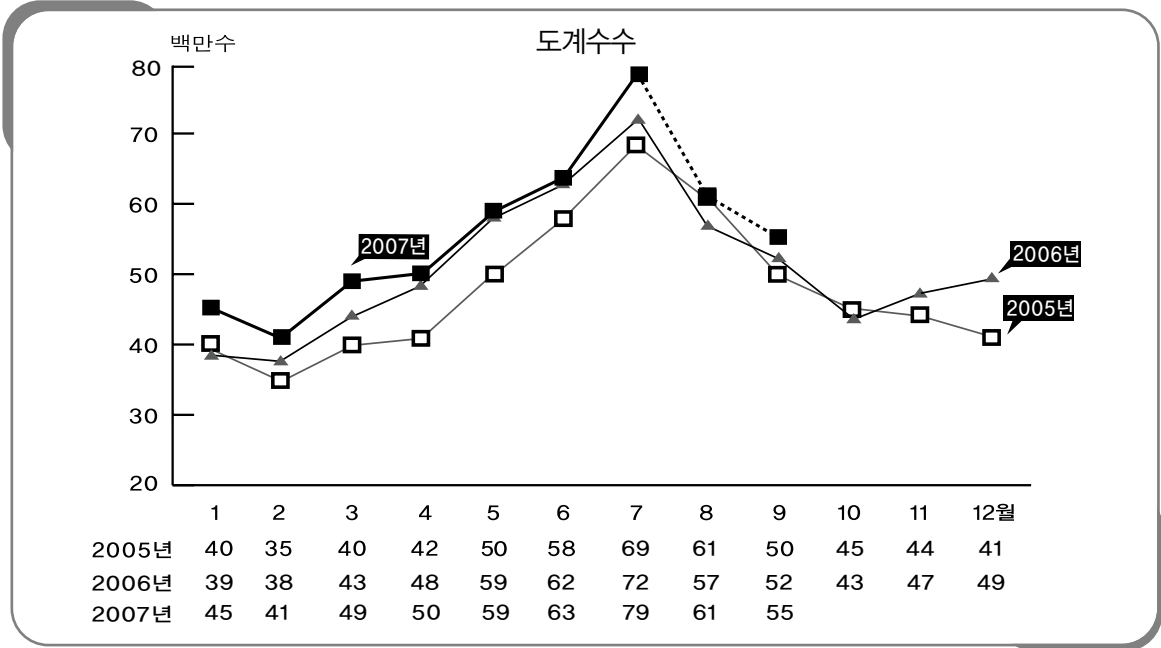
※주 : 평년은 2002~2006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부



※주 : 평년은 2002~2006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 자료 : 농림부

3. 도계수수

■ 9월 도계수수 전년동기보다 5.9% 증가 전망



※ 자료 : 농림부(2007년 8월, 9월은 농경연 추정 및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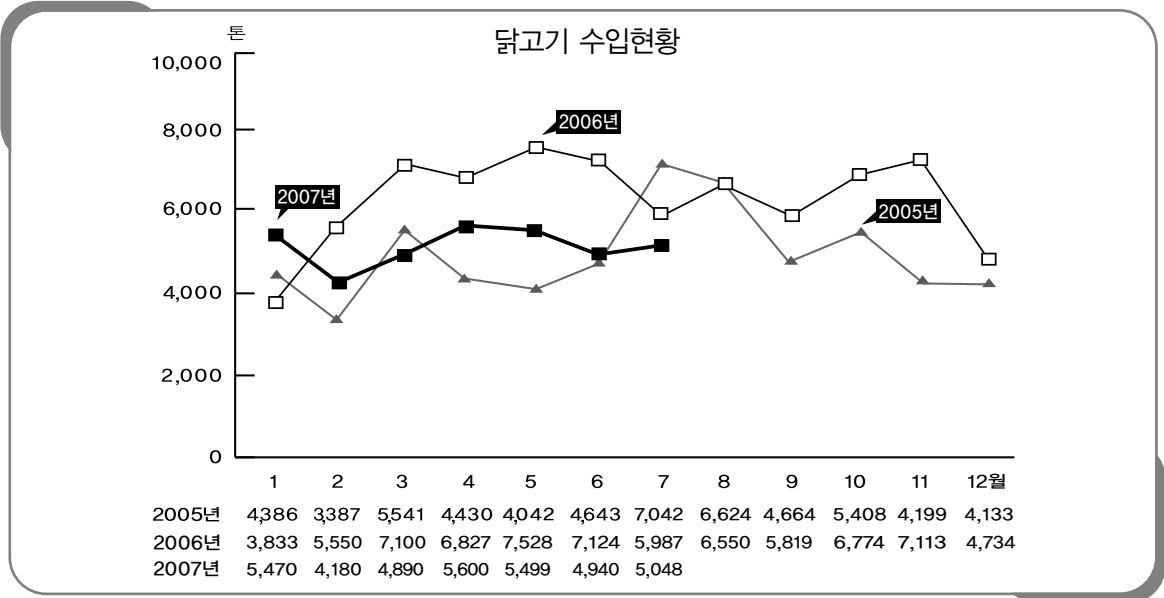
- 지난 7월의 도계수수는 지난해보다 9.1% 증가한 7,901만수로 집계됐다(삼계비율은 30.8%로 전년(31.1%)보다 낮아짐).
- 병아리생산수수의 증가로 8월 육계사육수수가 전년보다 증가해 9월의 도계수수는 전년동기보다 5.9% 증가한 5,460만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8월 대비 10.5% 감소).

4. 닭고기 수입현황

■ 7월 닭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감소

- 7월에는 5,048톤이 수입되어 전년동월(5,987톤) 대비 15.7% 감소했으며, 전월(4,940톤) 대비해서는 2.2% 증가했다. 검역기준으로는 7월 수입량은 2,533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43.1% 감소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7월까지 누계평균은 전년동기 대비 40.3% 감소한 2,030톤으로 집계됐다.
- 세계적인 수요증가로 가격은 고가로 유지되고 있으며 브라질과 미국에서 9월부터 증산계획이 있으나 당분간은 가격이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서 2/4분기 대비 3/4분기 가격이 약 50% 정도 폭등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산의 가격은 생산과잉과 소비감소로 인해 수입원가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수입상들이 대부분 손해를 보고 있어 수입량은 계속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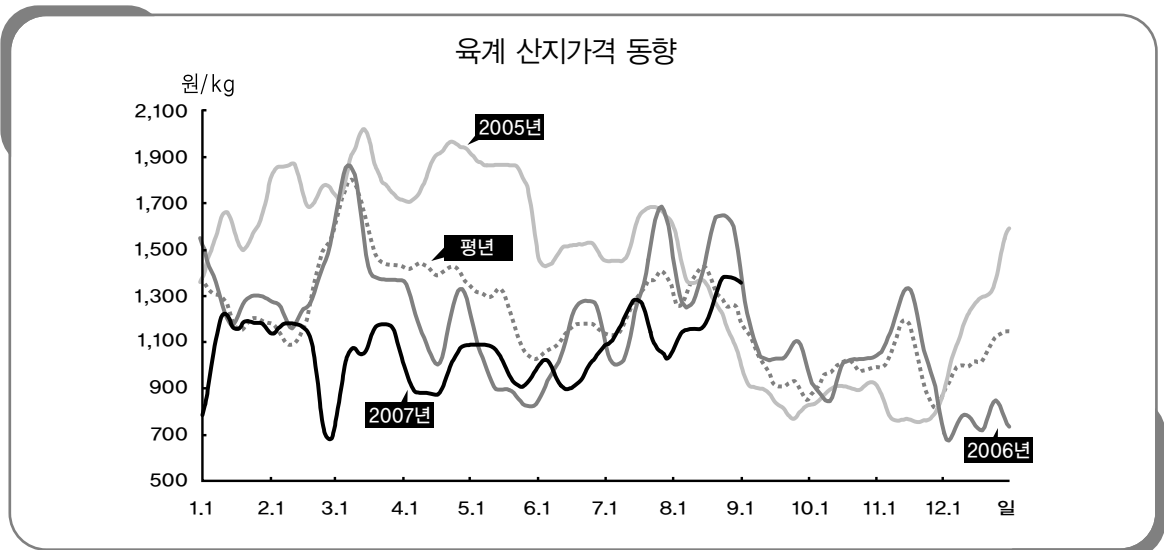
9월 닭고기 수급 전망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5. 가격동향

■ 9월 육계산지가격 평균 900~1,100원 전망



※ 주 : 평년은 2002~2006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 자료 :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 올해 북경기는 장마와 호우 등 날씨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예상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되지 않았으나 말복이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월 하순에 상대적으로 높은 시세가 형성되어 8월(1~28일) 평균 육계산지가격은 1,242원을 나타냈다(전년동월 1,478원 보다는 16.0% 하락, 평년가격 1,344원 보다는 7.6% 하락).
- 9월에는 8월 중순이후 늦더위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9월초까지 영향을 미치며, 하순에는 추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잠재력 및 입식수준이 전년대비 증가해 생산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육계시세는 전년 및 평년보다 다소 하락한 900원~1,1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년 9월 가격은 1,083원, 평년가격은 999원).


6. 수급자료

〈육계 및 삼계 입식·비축현황〉

(단위 : 천수)

일 시	육 계						삼 계					
	입 식			비 축			입 식			비 축		
	2006년	2007년	전년대비	2006년	2007년	전년대비	2006년	2007년	전년대비	2006년	2007년	전년대비
7. 16~7. 22	7,204	7,412	102.9%	2,115	7,519	355.5%	1,478	1,602	108.4%	773	1,352	174.9%
7. 23~7. 29	7,039	7,334	104.2%	2,304	7,621	330.8%	1,409	1,497	106.2%	1,206	1,368	113.4%
7. 30~8. 5	6,876	7,078	102.9%	2,386	7,696	322.5%	1,358	1,370	100.9%	1,077	1,522	141.3%
8. 6~8. 12	6,594	6,786	102.9%	2,327	7,740	332.6%	1,380	1,320	95.7%	1,049	1,533	146.1%
8. 13~8. 19	6,176	7,002	113.4%	2,384	7,636	320.3%	1,260	1,113	88.3%	1,020	1,574	154.3%

7. 결론

- 8월은 장마가 계속되어 소비가 저조했으나 말복 이후 늦더위로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시세가 생산비 근처에서 형성되었다. 늦더위가 9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 하순에는 추석이 있어 소비는 예년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생산량이 전년수준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육계가격은 전월 및 예년수준보다 하락한 900원~1,1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세변동요인

구분	생산(공급) 측면	소비(수요) 측면
인상요인	- 9월초순 늦더위로 인한 생산성 하락	- 학교 개학과 추석기간의 수요증가 기대
하락요인	- 전년도 과잉입식된 계군의 생산기담으로 생산 잠재력 증가	- 성수기가 지나면서 수요감소시기 - 포화상태에 이른 냉동비축 수준